

기 자 회 견

(총 2매)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월성원전 피해자 기 자 회 견

- 일 시: 2014. 12. 16(월) 오전 11시
- 장 소: 경주시청 브리핑룸
- 문 의: 이상홍 사무국장(010-4660-1409)
- 참 가: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 2명
경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순 서: 피해자 발언-기자회견문 낭독-질의 응답

기 자 회 견 문

갑상선암 피해자 1차 소장 제출, 월성원전 피해자 46명 참가 내년 1월말까지 2차 소송단 모집 갑상선암 피해자 실태조사 등 경주시의 적극적 지원 기대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에 1차 소송단으로 참여한 피해자 301명, 가족을 포함한 원고 총 인원 1,336명의 소장을 오늘 오전 9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지역별 피해자를 살펴보면 월성원전 46명을 비롯해 고리원전 191명, 한울(울진)원전 30명, 한빛(영광)원전 34명입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당연히 한국수력원자력(주)입니다. 오늘 소장 접수를 계기로 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합심하여 법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을 규명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내년 1월말까지 2차 소송단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차 소송단 모집은 환경단체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직접 이웃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나설 것입니다. 1차 소송단에 참여한 월성원전 피해자 46명은 전체 피해자의 절반도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주지역 피해자 46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양남면 23명, 감포읍 22명, 양북면 1명입니다. 양남면, 감포읍에 미처 접수를 못한 피해자가 많은 만큼 양북면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피해자들이 2차 소송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는 총인구의 약 0.42%(환자 215,178명/총인구 50,734,284명)입니다. 1차 소송단 참가자가 많은 대본리를 살펴보면 680명(2013년 기준) 중에 1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환자비율이 1.61%로 우리나라 평균의 약 4배가 됩니다. 이로써 전체 46명은 피해자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소송단 모집까지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피해규모가 되며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주시 등 행정기관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해당 지역의 시의원, 이장이 갑상선암 피해자 모집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주시는 해당 지역의 갑상선암 발병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17일 법원에서 갑상선암 발병의 책임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균도네 가족'의 재판에서 비롯됐습니다. 균도네 가족의 힘겨운 싸움에 감사를 드리며 2심 승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공동소송은 균도네 가족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변호사 변영철, 서은경)'에서 맡아 주고 계십니다. 원고 모집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과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원전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월성원전 1차 소송단 원고는 여성 37명, 남성 9명이며 거주기간은 1983년 월성1호기 가동 이후 갑상선암 진단 시까지 평균 24년입니다. 최연소 피해자는 1980년생으로 갑상선암 진단 당시 만31세 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월성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 주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의 지속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4. 12. 16.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 1차 소송참가자 일동,
경주환경운동연합